

광주지역 국회의원 전원 “구간경계조정 서둘러야”

8명중 6명, 북구 다선거구 동구로, 첨단 1·2동 북구 편입 선호
정치적 유불리 떠나 시민의 입장에서 ‘정치권 협의’ 나서야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이 도심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선거구 유지를 위한 구간경계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6명은 북구 다선거구를 동구에 편입하고, 광산구 첨단1·2동의 북구 편입을 골자로 하는 구간경계조정2안(중폭)에 찬성했다.

무엇보다도 8명의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정치권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지역 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구간 경계조정을 마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때 번 선거 때마다 인구감소 탓에 의석 수가 줄어들 우려를 낳고 있어 구간 경계조정을 서둘러 마무리한 뒤 지방선거를 치르고, 이를 통해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도 기존의 선거구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29일 광주일보가 8명의 지역 국회의원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역 국회의원 8명 모두 구간경계조정에 찬성하고 서둘러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광주시 구간경계조정 3가지 안 중 2안에 윤영택(동남갑)·이병훈(동남을)·송갑석(서구을)·조오섭(북구갑)·이형석(북구을)·이용빈(광산갑) 의원 등 6명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광주시가 지난 2018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구간경계조정 2안은 광산구 중심의 인구 편중을 고려하고 첨단 1·2동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계획이다. 선거구 측면

에서는 북구 다선거구(문화·풍향·두암1·2·3·석곡동)를 동구에 편입하고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하자는 안이다.

이는 지역 갈등 최소화와 기존 행정 구역의 안전화 측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무등산 국립공원 관리 일원화와 과거 동구에서 분리된 지역의 재통합이라는 의미도 있다. 한편, 민형배(광산을) 의원은 “첨단구 신설”을 주장했고 양항자(서구을) 의원은 “구체적 방법은 다시 고민하자”는 의견을 냈다.

구간경계조정은 주민공청회 등을 연 뒤 기초의회·광주시의회와 최종 검토과정을 거친 뒤 시의회를 통과하면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민의 반발과 정치권의 ‘섀넬’ 탓에 전혀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일부 정치인의 선거구가 다른 구로 옮겨가거나 축소되기 때문에 정치인간 유불리가 분명해 정치권이 비협조적이었다. 지역구 통합을 위해 물론 일부 현역 의원들도 지역구 사수를 위해 선거구 획정에 반대했었다.

또 선거구 축소를 막기 위해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행정구역상 남구인 백운1·2동·양림동·사직동·방림동1·2동을 인구하한선에 걸린 동구 선거구에 붙여 ‘동남갑·을’이라는 기형적 선거구를 만들었다. 이때문에 현재 백운1·2동·양림동·사직동·방림동1·2동을 지역구로 둔 기초의원 2명과 시의원 1명은 남구정이 아닌 동구청을 상대로 의정을 펴거나 다른 지역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송갑석 위원장은 “정치 논리를 벗어나 시민의 입장에서 광주의 미래를 위해 정치권이 적극 협의해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폭우...물바다 된 도로 29일 광주·전남 지역에 최고 2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상가·축사·농경지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광주기상청은 오는 31일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으며, 30일 밤까지 영광·장성·담양 등 전남 북부지역 최고 200mm, 전남 남해안지역 30~80mm, 광주전남 내륙 지방 50~150mm의 집중 호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 북구 중흥2동 도로가 쏟아진 빗물로 인해 물바다로 변했다. ▶관련기사 6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코로나19 확산 현 안정세 유지면 내달 3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2단계 적용 기간 4일 연장

광주시가 지역감염의 안정세를 조건으로 다음 달 3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요섭 광주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코로나19 민·관 공동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이날까지 적용하기로 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주말인 8월 2일까지 4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말까지 현재의 안정된 상황이 유지되면 8월 3일부터 1단계로 전환한다.

지역 감염 확산 현황을 보면 5일간 1명에 그쳐 외경상 확산이 진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자가 격리자가 1000여명에 달해 불씨는 살아있다고 이 시장은 진단했다.

민·관 공동대책위에선 2차 유행이 시작된 6월 27일 이후 확진자 171명 가운데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31명(18.2%)에 달하고 무증상자도 76명

(44.4%)이나 돼 아직 파악되지 않은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당분간 2단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되고 주말까지 겹쳐 긴장감을 갖고 더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역학조사에서 10개 이상 연결고리가 확인되면서 확진자 대부분 감염원이 파악됐지만, 161번, 168번, 192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어 ‘조용한 전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이 시장은 “방역 대응 체계가 완화되고 일상으로 복귀하려면 시민이 더 엄격한 방역 주체가 돼야 한다”며 “최고의 백신이라 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 밀접 접촉 금지, 다중 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22일 확진자 9명이 한꺼번에 나왔지만 23일 2명으로 줄었으며

24일 0명, 25일 1명, 26~27일 0명, 28일 1명, 29일 오후 6시 현재 0명 등 안정세가 뚜렷해졌다. 특히 지난 28일 확진자가 해외 입국자인 점을 고려하면 24일부터 지역 감염자는 1명 뿐이다.

광주시는 지난 1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2주, 4일씩 두차례 기간을 연장하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도 문을 닫았다. 이에 따라 광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야구 등 프로 스포츠 관중 입장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당정청, 국정원 ‘국내정보관 폐지’ 명문화 추진

오늘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
수사권 조정 후속 과제도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회의에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 과제 ▲국가정보원 개혁 추진방안 ▲자치경찰 도입 방안 등 크게 3가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정원 개혁안의 경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

으로 보인다. 대공 수사권 이관 문제는 이미 당정이 합의한 상태다. 박지현 국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대공 수사권에 대해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해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꼭 넘기겠다고 청와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차원에서 국내 정보담당관(IO) 폐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정원이 IO를 자체적으로 폐지한 상황이지만, 국정원법에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으로 못박겠다는 것이

다. 이밖에 국정원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감찰관 신설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 도입도 논의한다.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하도록 하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검정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시행령 추진 계획 역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광주수돗물

맑고 깨끗한 상수원

맑고 깨끗한 선진강 지류 산간계곡의 청정 원수를 사용합니다.

참! 깨끗하고 맛있습니다!

엄격한 수질검사를 통과한 명품 수돗물

원수 124개 항목, 정수 225개 항목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똑똑하고 안전한 수돗물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CT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바로알림톡 서비스 안내
이제 고지서 분실 걱정 없이 **수도요금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확인하세요!

Q. 수도요금 바로 알림톡 서비스란? 우리집 수돗물 사용량과 납부금액은 물론 사용기간, 납부방법 등 요금 세부내역을 매월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핸드폰 문자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전자고지 서비스

Q. 서비스 신청방법은? 전 화 : 관할지역사업소 신청
인터넷 : 상수도본부 홈페이지 신청 (water.gwangju.go.kr)

문의사항 안내 062-121

- 동부사업소 062) 609-6500
- 서부사업소 062) 609-6600
- 남부사업소 062) 609-6700
- 북부사업소 062) 609-6800
- 광산사업소 062) 609-6900

오직 깨끗한 물! 오롯이 광주시민에게!

100th
1945-2020